

[레저 & 트래블]



아들과 떠날 1박2일 서울 미술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아버지와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아들의 1박 2일 서울 나들이를 취재했다. 아들은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에 관심이 많다. 이번 여행은 대학과 미술에 초점을 맞춘 기행이 되었다. 첫날에는 신촌으로 가서 대학들을 둘러보았고 둘째날에는 청와대 앞에 들른 뒤 회화와 디자인 작품들을 만끽할 수 있는 삼청동과 인사동을 집중적으로 답사했다.

거리거리 넘치는 예술
걸음걸음 쌓이는 추억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인사동 쌈지길 세오름길 한 편에 설치돼 있는 설치미술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인사동 쌈지길 남자 화장실 내부



신촌일대 대학 - 자원봉사팀, 그속에 흐르는 예술적 흥취

아버지와 아들은 서울행 KTX에 몸을 싣는다. 오전 11시 서울 도착.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촌으로 간다. 신촌에는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등이 가까운 거리에 흩어져 있다. 서강대를 출발지로 삼는다. 서강대 정문에서 후문을 지나는 방향을 잡으면 걸어서 이화여대를 지나 연세대까지 닿을 수 있다.

서강대 본관은 '현대건축의 거장' 김중업(1922-1988)이 설계한 것이다. 본관을 지나 로울라도서관으로 간다. 한국에서 손꼽아 주는 도서관이다. 학교 도서관인 아들은 "중학교 도서관은 책방 수준이네요"하며 놀라워 한다.

후문을 나와 이대쪽으로 간다. 여대 앞답게 각종 퓨전 음식점들과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 따위들이 즐비하다.

신촌 기차역을 지나 연대 앞으로 가자 인파가 부쩍 늘어난다. 시원하게 뻗은 직선길을 따라 대학본부로 쓰이는 언더우드관을 1924년에 건립된 4층짜리 준 고딕 양식의 석조건축물로서 사적 제276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홍대 미대 졸업전시회

택시를 타고 홍대 앞으로 간다. 홍대 앞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색적이다. 우선 미술 입시 학원과 화실들이 즐비하다. 물감 물은 앞치마를 두른 학생들이 삼삼오오 거리를 걷는데 남의 의식하지도 않을뿐더러 보는 사람들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 홍대 앞은 활기차다. 음식점들도 개성적이다.

삼청동 갤러리길 - 개성만점 카페·이국적 음식점 즐비

광화문, 위풍당당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힐끗거리며 청와대로 향한다. 서울시청앞에서 있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겨울) 10-15분 간격으로 8000번 시내버스가 청와대 분수앞으로 데려간다.

일반 관광객 주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비가 삼엄하다. 무전기를 든 경비인력들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서늘한 시선을 보낸다. 청와대와 육감적인 인왕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경복궁 담벼락을 끼고 '청와대로(路)'를 따라 걸어서 삼청동으로 향한다. 삼청동, 산과 물과 인심이 맑다는 동네다. 청와대로가 시작되는(혹은 끝나는) 지점에서 몸을 꺾어 동네로 접어든다. 여기에서부터 삼청공원까지 나 있는 길이 삼청동 길이다.

삼청동 길에서는 빨리 걷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아들은 초입에서부터 서다 걷다를 반복한다. 카메라도 바빠졌다.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흡입하고, 담고 하는 것이다.

전통과 현대는 삼청동 길 위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소박한 화랑들이다. 삼청동길을 아예 '갤러리길'이라 불렀도 무방하다. 비데칭 데칼코마니전, 드로잉전, 금속공예전 같은 전시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삼청동 한 카페의 어린왕자 벽화

이건 또 뭔가? 옷가게들, 허름하기도 하고 기발발랄하기도 한 개성 만점의 카페와 전통·외국 음식점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오래된 골목과 들계단들...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내심 당혹스러워 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눈길을 확 끌 사로잡는다.

인사동 쌈지길 - 현대적 감각·예술미의 조화

삼청동 감사원 맞은 편에서 자그마한 마을버스를 탄다. 5분 남짓 만에 인사동에 다다른다. 인사동, 조선시대에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즉, 도화서가 있던 곳이다. 지금은 골동품점 화랑 표구점 필방 전통공예점 전통차점 따위들이 들어서서 문화중심지를 자부하고 있다. 물론 회화 조각 설치영상 등 한국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인사동 길은 600m 정도에 불과한데, 몇 걸음만 걸어도 새로운 화랑이 눈에 들어온다. 각종 전시회가 한창이다.

인사동 네거리에서 안국동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특별한 건물이 하나 눈에 들어온다. '쌈지길'이다. 2004년 12월 18일에 문을 연 인사동의 새 명물로서, 복합문화공간 겸 소령미술관이다. 좀 더 소상히 말하자면 3평 남짓한 공예작가의 공방과 각종 디자인 전문점, 전통가구점, 생활용품점, 전통식당 따위 70여 곳이 모여 있는 지상4층 지하2층 연면적 4천290㎡(1천300평) 규모의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아니, 그런데 길이라니?

입구에 들어서니 대략 495㎡(150평) 규모의 'ㅁ'자 형 평 빔 마당이 나타나고 한층으로 계단이 나 있다. 아니다, 수직으로 오르내리게 돼 있는 층계가 아니라 3-5도 정도



위에서 내려다 본 쌈지길 마당

높이로 빙빙 비틀려 올라가는 나선형 경사로다. 그냥 천천히 걸다 보면 층 수가 달라지는 구조다. 그래서 계단이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사동의 작은 골목들을 나선형으로 쌓아올린 공간이다. 인사동의 축소판이다. 각 층의 이름은 첫걸음길, 두오름길, 세오름길, 네오름길이다. /부산일보=이광운기자
leeekw@busanilbo.com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It features a blue and white color scheme with images of hearing aids.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e will help you get rid of hearing loss). Contact information: 본점 (1062) 227-9940, 총상점 (1062) 227-9970.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Republic of Korea NO.1 Divorce Specialist Company). It features a red and white color scheme with images of a smiling couple. Text includes: '수업은 사별, 그러나 돈은 반사별' (Classes are for divorce, but money is for remarriage),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Republic of Korea NO.1 Divorce Specialist Company), '7th Party (주) 행복출발' (7th Party (Inc.) Happy Start), and a phone number: 02-527-3388.

Advertisement for '리첸 리치너' (Ritcher Ritchener) kitchen products. It features a modern kitchen scene with a woman. Text includes: '리첸 리치너' (Ritcher Ritchener), '리첸 리치너 광주직영전시장 OPEN' (Ritcher Ritchener Gwangju Direct Sales Market OPEN), and a phone number: 02-527-3388.